



쿠팡 3분기 연속 흑자 매출·영업익 신기록 03



Life

야구장 반입
일 수입부활
캔맥주 대격전
11



재정난에 파산 신청한 한국국제대, 20번째 폐교 대학 되나

(2000년부터)

임금체불 등 심각한 재정난 시달려 정부 지원 끊기자 신입생 수 급감 교육부, 파산 결정 시 폐교 절차 진행 부지활용 등 부작용 최소화 급선무



한국국제대학교 전경.

/한국국제대학교 페이스북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려 온 한국국제대학교가 결국 법원에 파산 신청을 하면서 존폐 갈림길에 섰다. 파산이 선고되면 한국국제대는 2000년대 들어 폐교 되는 20번째 대학이 된다. 교육부는 한국국제대를 대상으로 9일부터 9일간의 종합감사에 착수한 상태다.

10일 대학가에 따르면 한국국제대의 체임 전·현직 교직원 50여명은 지난 4일 창원지방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다. 공과금과 임금 체불 등으로 더 이상 학교가 버틸 수 없다고 판단한 대학구성원들은 지난 4월 초 공청회 등을 거친 뒤 법원에 파산 신청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인 파산 신청 결과는 50일 정도 걸릴 전망이다. 파산이 내려지면 교육부

는 폐교 절차를 진행하고, 해당 학생들을 특별편입학 대상으로 편성해 학습권을 보장한다. 법인의 재산권은 박탈된다. 이에 따라 법인 학교 부지와 건물 등은 새로 선임된 파산관재인이 정리 절차를 진행한다.

한국국제대는 교직원 임금 100여억 원 체불, 공과금 10여억 원 체납 등 재단

의 기능이 사실상 마비된 상태다. 올해 신입생은 27명에 그치며 충원율은 7%도 이루지 못했다. 교직원은 8명, 교수는 40여 명만 남았다.

앞서 1978년 진주여자전문학교로 개교한 한국국제대는 2003년 입학정원 1265명의 4년제 대학으로 출범했다.

한국국제대가 본격적인 재정난을 겪

기 시작한 것은 정부로부터 재정지원제한대학에 선정되던 2018년부터다. 이후 국가장학금, 학자금대출 등 지원이 끊기면서 신입생 수가 급감했고 이는 대학 재정 상황이 심각해지는 악순환으로 이어졌다. 앞서 2011년과 2015년, 감사원과 교육부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을 이행하지 않아 정원감축 통보를 받으며 재정난을 겪던 상황이었다.

수년간 임금 체불에 시달리던 퇴직 교직원들이 지난해 말 법인 통장을 가압류하면서 상황은 더 나빠졌다. 학교 통장이 압류되면서 학교 계좌로 들어오는 돈이 체불 임금 지급에 쓰였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공과금을 내지 못해 지난 3월 말 단전 단수 위기를 맞기도 했다. 법원은 법인이 학교를 정상화할 수 있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파산 여부를 판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인의 정상화 가능성은 작다.

한국국제대 학교법인 일선학원은 교직원 급여를 감당할 여력이 없다고 판

단하고 지난 3월 15일 긴급이사회를 열어 남아 있는 교직원에게 권고사직을 권하기로 했다. 대학이 고위 관계자는 “학령인구가 급감하는 상황에서 사학비를 시작으로 대학 운영에 극심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학에 회생 기회가 주어지는 쉽지 않을 것”이라며 “앞으로 줄이어 생길 수 있는 폐교 대학의 잔여 재산 처리와 부지의 지역 활용 등 부작용을 최소화할 방안을 마련하는 게 급선무”라고 말했다.

한편, 자진 폐교를 포함해 2000년부터 지금까지 문을 닫은 대학은 총 19곳이다. 지난 2000년 4년제 대학 중 최초로 폐교 조치를 당한 광주예술대를 시작으로 ▲아시아대 ▲명신대 ▲선교청대 ▲건동대 ▲경북외대 ▲국제문화대학원대 ▲인제대학원대 ▲한중대 ▲대구외대 ▲서남대 ▲동부산대 ▲성화대 ▲벽성대 ▲대구미래대 ▲개혁신학교 ▲한민학교 ▲서해대 ▲동부산대 ▲한려대 등이 폐교됐다. /이현진 기자 lhj@metroseoul.co.kr

“몸도 마음도 튼튼하게... 시민 건강 지켜요” 강화도, DMZ ‘평화관광’ 명소로 가꾼다

서울시, 건강분야 리딩도시로 도약 상담 지원 등 시민 마음건강 돌봄 강화 심폐소생술 교육 등 응급처치 인프라

서울시가 100세까지 건강한 ‘100년 건강도시 서울’을 만들어 건강 분야 글로벌 리딩도시로 도약에 나선다.

10일 서울시에 따르면, 올해 ▲시민 마음건강 돌봄 강화 ▲응급처치 인프라 확대 ▲안전한 밥상 관리 등을 추진한다.

우선 시는 시민 마음건강 돌봄 사업에 12억9000만원을 투자한다. 이는 1인 가구 증가,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자살·우울 같은 마음건강 문제가 심화된 데 따른 조치다.

시는 일반시민을 대상으로 온·오프라인 마음건강검진을 추진하고, 청년층

과 임산부의 마음건강 문제를 조기에 발견, 상담을 실시해 이들의 정신건강 회복을 지원한다.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을 위한 생명 이음 청지기 사업과 자살 시도자 및 유가족 관리에도 총력을 기울인다.

시는 마음건강검진 결과지(마음처방전) 개발 등 정신건강 통합 플랫폼 ‘블루터치’의 기능을 고도화하고, 자살 고위험군 조기 발견 및 위기관리를 위해 유관기관(경찰·소방)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했다.

응급환자 처치를 위한 지역사회 인프라도 확충한다. 시는 올해 단계별(기본·일반·심화)·대상별 맞춤형 ‘심폐소생술’ 교육과 고위험지역·다중이용시설 내 ‘자동심장충격기’ 보급·관리에 약

12억원을 투입한다.

아동부터 어르신까지 대상자별 맞춤형 교육으로 1가구당 1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교육한다는 계획이다. 권역응급의료센터 같은 지역 자원과 협력해 고품질 심폐소생술 교육을 실시할 방침이라고 시는 덧붙였다. 시는 자치구별 CPR 교육센터를 운영해 연간 70만명에게 심폐소생술을 가르치고, 자동심장충격기 장비 4148대를 설치·운영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시는 가정 간편식 취급업소, 온라인 유통 식품, 집단 급식소 등을 대상으로 식중독 예방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다. 가정간편식 제조업소를 2년 2회 전수조사하고, 무인 판매점 순회 방문 지도를 1년에 4회 실시한다.

/김현정 기자 hjk1@

공모사업 1위 선정... 국비 7억 확보

인천광역시와 인천관광공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추진한 ‘2023 DMZ 평화테마 공연 페스타’ 공모사업에서 1위로 선정돼 국비 7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올해 처음 추진된 이 사업은 비무장지대(DMZ) 인근 접경지역의 생태문화 자원과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 및 체험 프로그램을 연계해 평화관광 명소로 육성하기 위해 총 20억 원 규모의 공모 형태로 진행됐다.

시는 강화군과 협업해 대한민국 DMZ 접경지역 중 유일한 ‘섬(아일랜드)’ 지역이라는 인천만의 차별성을 부각한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 개최를 사업으로 제안했다. 콘서트와 함께 DMZ 접경지역 걷기와 방문인증 이벤트 ‘DMZ 평화랜드 하이커’, 지역관광 및 체험 홍보부스 ‘DMZ 평화랜드 홍보관’을 비롯해 체험 프로그램으로 구성됐다.

시는 국비 7억 원에 시비 2억 원을 더해 총 9억 원을 들여 8월에서 9월까지 ‘DMZ 평화랜드 뮤직페스티벌’을 개최할 예정이다. /인천=김대의 기자 dykimi@

당산동 일대, ‘한강뷰’ 명품 주거단지로

한강조망 확보, 최고 39층 아파트 조성

서울 영등포구 당산동 일대가 한강을 품은 최고 39층 주거단지로 재탄생한다.

서울시는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을 확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이곳은 한강공원과 가깝지만, 가늘고 긴 대지 형태와 주변 단지로 한강 조망이 가로막히는 등 건축 배치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시는 해당 지역에서도 한

강을 바라볼 수 있게 단지를 계획했다.

시는 주변 지역의 일조 침해를 최소화하면서도 한강 조망을 확보할 수 있도록 고층 탑상형(39층 내외)과 중층 판상형(17층 내외) 주동을 혼합 배치했다.

시는 당산동6가 104번지 일대 재개발 사업의 신속통합기획안이 확정됨에 따라 연내 정비계획 결정이 완료될 것으로 전망했다. /김현정 기자

오늘의 날씨

해돋이 / 05:27 | 해질 / 19:30

5월 11일 (木) / 음력 : 3월 22일

수도권 날씨 / 13~26°C

운동 지수 / 빨래 지수 / 세차 지수 / 외출 지수

지역별 날씨: 연천 8/25, 동두천 10/26, 가평 9/26, 파주 9/25, 서울 13/26, 양평 11/25, 인천 13/22, 수원 13/25, 용인 13/25, 평택 9/26

·자료제공 : Kweather 케이웨더(주) www.kweather.co.kr



▲조선왕릉 숲길 9곳, 6월까지 한시 개방
▲축구 64년만의 아시안컵 정상대전... 11일 초 추첨 /사진 뉴시스

▲女배구 흥국생명, 단장 다시 교체...허정민 상무 선임
▲아이유 측, 누리꾼 표절 의혹 등 허위 사실 유포...법적대응



▲방탄소년단 제이홉·슈가 OTT 다큐, 6월 극장에도 걸린다
▲여성주의 작가 ‘키스미스’ 개인전, 페이스 갤러리 서울에서 전시 /사진 뉴시스

바스타비 TV와 함께하는 메트로 뉴스